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33호
2024.12.26.(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반도체** 美, 중동·동남아 대상 AI 반도체 수출 규제 추진
- 미국·원자재** 美 흑연 업계, 중국産 흑연 수입에 최대 920% 관세 부과 청원
- EU·통상**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 발효...3년 뒤 적용
- 일본·이차전지** 日, 혼다·도요타에 수소연료전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주간 이슈 포커스

- EU·자동차** EU 자동차 산업 위기, CO₂ 배출규제 완화 움직임 관심 대두

원자재 뉴스 PLUS

- 원자재** EU, 실리콘 및 망간 관련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II. 월간 공급망



칠레 국가리튬전략 및 이행현황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세계 천연가스 공급 안보 위험 요인

IV. 공급망 소식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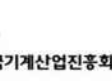
2025 한국무역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대중소 동반수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 제134호는 한 주 휴간 후 '25.1.9.(목)에 발간됩니다.

올 한해도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반도체 美, 중동·동남아 대상 AI 반도체 수출 규제 추진

- 12.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정부는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중동·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 동 규제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을 제외하고, 중동·동남아 등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국가에 수출 쿼터를 적용할 방침
 - 지난 10월 TSMC의 반도체가 화웨이 제품에서 발견되면서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추가 제재를 검토
 - 현지 언론은 중동·동남아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AI·데이터센터 허브로 발전을 도모 중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산업계획 추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

핵심 키워드

첨단반도체

대중제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4.12.13), 한국경제(24.12.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원자재 美 흑연 업계, 중국産 흑연 수입에 최대 920% 관세 부과 청원

- 12.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활성 음극재 생산업계는 美 상무부와 국무위에 중국産 천연흑연·인조흑연 대상 反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최대 관세 920% 부과를 청원
- 업계는 기존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는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받는 中 흑연 생산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국 내 산업 저해 및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다만 일각에서는 흑연 수입에 대한 대안 없이 급격한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할 경우, 배터리 셀 비용 및 미국産 전기차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
 - 중국産 흑연 제품에 대한 조사 및 관세 부과 여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


핵심 키워드

반덤핑

보조금

출처: 블룸버그(24.12.18),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92호(24.12.1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U, 통상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 발효...3년 뒤 적용

 12.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을 발효

- EU 영토 내외에서 회원국과 집행위가 조사하여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단 시, 모든 EU 회원국에 해당 제품을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금지
- 동 규정은 '27.12.14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EU 역내 수입 및 유통 제품 중 업스트림 공급망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이 적용 대상

* 완제품·부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해당하며 원자재, 수확, 생산 등 제조 단계를 지칭

- EU 집행위는 '26.6.14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으로, ▲강제노동 식별 방법, ▲제보 및 제재, ▲기업 관할 당국 간 소통방식, ▲모범 사례 등이 포함 예정


핵심 키워드

강제노동

대중제재

출처: EU 관보('24.12.12), 경제통상 브리핑 84호('24.12.18)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일본, 이차전지 日, 혼다·도요타에 수소연료전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12.18일(현지시간) 日 경제산업성은 자국 내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혼다·도요타 대상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을 발표

- 경제산업성은 현재 탈탄소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설비투자의 3분의 1을 보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혼다와 도요타에 각각 147억 엔과 112억 엔을 교부기로 결정
- 日 정부는 금번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소연료전지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도요타는 '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연간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
- 日 정부는 지난 '23년 개정한 수소기본전략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고 日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핵심 키워드

수소연료전지

보조금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12.18), 일본 경제브리핑 44호('24.12.23)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자동차 EU 자동차 산업 위기, CO₂ 배출규제 완화 움직임 관심 대두

- 12.11일(현지시간) 유럽 국민당(EPP)은 성명문 발표를 통해 **역내 자동차 제조기업에 대한 CO₂ 배출규제 벌금 면제** 방안 마련을 촉구
 - 유럽 자동차 제조사는 '25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21년 대비 15% 감축해야 하나, 최근 수요둔화와 중국산 전기차의 약진으로 **목표 달성 불가 우려 제기**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25년 유럽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약 167억 유로 (약 25조 3,400억 원)로 추산

EU 자동차 CO₂ 배출규제 개요

구 분	내 용
CO ₂ 배출규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승합차) '21년 대비 '30년 승용차 55%·승합차 50% → '35년 100% 감축 목표 설정 (상용차)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목표 설정 EU 집행위는 역내 자동차에 대한 법안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승용차·승합차는 '26년, 상용차는 '27년에 실시 계획
EPP 요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CO₂ 감축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부과를 면제하는 일시 조치 요구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탄소보정계수(CCF)*'를 도입하고, 바이오연료·합성연료 등 대체연료의 역할 인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보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전체 연료 소비량 가운데 합성연료·바이오연료 비율을 고려하여, 대체 연료로 절감한 CO₂ 양을 전체 감축목표에서 공제하는 산출법 유럽 국민당(EPP)은 현재 목표가 최근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업계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자동차제조협회 총장은 “업계가 ▲벌금 납부를 위한 자금 동결, ▲생산량 감축, ▲규정 준수를 위한 크레딧 구매 중 적절한 결정을 해야한다”며 규제의 명확성 촉구 한편 국제청정운송위원회(ICCT)는 현재 배출량 수준은 '23년 대비 평균 12% 감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자동차 제조기업별 목표 도달을 위한 대비 수준 격차가 존재해 제조사가 체감하는 부담은 상이

핵심 키워드

CO₂ 배출규제

탄소보정계수

출처: Euractiv('24.12.11), EU 경제통상 브리핑 85호('24.12.20)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EU, 실리콘 및 망간 관련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12.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망간 및 실리콘 기반 합금 원소 및 해당 제품의 역내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일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개시

관련 제품은 규소·페로망간·페로실리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는 개시일로부터 최대 9개월 소요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3주)

비철금속 | 中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동 가격↓, 美 전기차 지원축소 전망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동	8,478	9,165	8.1	9,055	8,856	△2.2
니켈	21,474	16,940	△21.1	15,723	15,244	△3.0
아연	2,647	2,753	4.0	3,091	2,998	△3.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中 경기지표 부진 및 재고량 증가세 지속으로 전기동 가격 하방압력 발생

다만 페루 등 주요국의 동 광산 생산량 부진 전망에 따라 상기 하방압력 일부 상쇄

(니켈) 美 대통령 인수위는 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권고하는 등 美 전기차 지원축소 전망에 따른 니켈 가격 하방압력 발생

철강 | 中 조강생산 규제에 따른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6.82	△21.1	132.55	128.55	△3.0
원료탄	295.71	245.31	△17.0	204.80	202.95	△0.9
철광석	119.32	110.59	△7.3	106.36	104.25	△2.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中 환경규제에 따른 조강생산 제한으로 수입이 둔화되며 가격 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中 석탄 증산 및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3주)

희소금속 | 中 기업 아프리카 광산 확보로 탄산리튬 가격↓, 美 브라질 광산 개발로 코발트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08	△4.5	1,150	1,150	-
탄산리튬	35,697	12,734	△64.3	10,464	10,397	△0.6
수산화리튬	37,972	11,631	△69.4	9,514	9,574	0.6
코발트 (U\$/lb)	17.82	16.36	△8.2	15.01	14.83	△1.2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0,566	△21.1	226,700	223,500	△1.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5,576	△29.1	57,680	56,240	△2.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中 주요 리튬 생산업체가 아프리카 광산을 통해 탄산리튬 생산량을 확보하며 가격 하락세 시현
 (코발트) 美 정부의 브라질 소재 코발트 광산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 하락세 지속

에너지 | EU 대러 제재 강화, 美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원유 가격↑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12.2주	12.3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79.71	△2.39	72.56	73.53	0.97
브렌트유	82.17	80.00	△2.16	73.15	73.34	0.19
WTI	77.60	75.89	△1.71	69.71	70.32	0.6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EU 대러 제재 강화, ▲美 원유 재고량 감소 등으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中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가 상승압력 일부 상쇄

- 12.16일(현지시간) EU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러 제재 패키지를 최종 채택, 러시아 유조선 52척, 기업 30개사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
- 12.13일(현지시간) 美 상업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93.4만 배럴 감소한 4억 2,101.6만 배럴로 5년 동기 평균 대비 5% 이상 낮은 수치 기록
- 12.16일(현지시간) 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3.0%로 전월 증가율 4.8% 대비 둔화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4.6%를 하회

월간 공급망

◆ 칠레 국가리튬전략 및 이행현황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칠레 광업 개요 및 광물자원 현황

- ❏ 칠레에서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1.9%으로 전력, 용수, 제조, 운송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 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3년 광산물 총 수출액은 5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광업 직접 고용인력은 28.7만 명으로 추산된다.
- ❏ 한편,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광물수요 감소, 가격하락, 환율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도전과제뿐 아니라 구리 품질 저하, 생산비용 증가, 수자원 부족 문제 등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및 지역사회의 승인이나 광업법 개정, 광업 로열티 도입 등과 같은 현지 제도적 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 ❏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2023년 매장량 기준 칠레는 구리 1.9억 톤, 리튬 930만 톤, 레늄 130만 톤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오딘은 61만 톤으로 전 세계 2위, 몰리브덴은 140만 톤으로 전 세계 4위를 차지한다. 2023년 생산량 기준으로는 구리 500만 톤으로 전 세계 1위, 점유율 22.7%를 기록하였으며 리튬의 경우 44,000톤으로 호주 다음으로 2위, 아이오딘 세계 1위, 몰리브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칠레 구리 생산의 전 세계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칠레 리튬산업 현황

- ❏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부존량의 53%이다. 이 중에서도 칠레는 염호 내 리튬 농도와 증발률이 높고, 국가신용도 및 투자환경이 양호하여 중남미에서는 최적의 투자대상국으로 꼽힌다. 칠레에는 약 20개의 염호가 존재하는데 주로 칠레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아타카마(Atacama) 염호와 마리쿱가(Maricunga) 염호가 대표적으로, 현재 칠레 리튬은 아타카마 염호에서 칠레 기업인 SQM과 미국 기업인 Albemarle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주요 리튬 생산국인 호주의 경우, 경암형 리튬으로 대부분 정광 형태로 중국에 수출, 가공되기 때문에 정제 리튬 기준으로 보면 칠레는 호주에 이어 전 세계 2위 국가이다.

[표 1] 칠레産 리튬 제품별 수출규모 및 HS CODE

품 목	HS Code	수출량(톤)	수출액(USD 백만)	비중(%)
탄산리튬	283691	188,380	6,061.2	77.5
수산화리튬	282520	23,011	1,009.2	12.9
황산리튬	2530902	38,432	752.2	9.6
합 계	-	249,835	7,882.7	100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물투자실무가이드

[표 2] 칠레 탄산리튬 수출 상위 5개국(2023년)

순위	국가	수출량(톤)	비중(%)	수출액(백만불)	비중(%)
1	중 국	64,552	62.3	2,039.8	63
2	한 국	27,402	26.6	840.7	26
3	일 본	8,241	8.0	287.7	9
4	미 국	2,333	2.3	57.0	1.8
5	벨기에	242	0.2	7.4	0.2

* HS Code 28369130 기준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물투자실무가이드

[표 3] 칠레 수산화리튬 수출 상위 5개국(2023년)

순위	국가	수출량(톤)	비중(%)	수출액(백만불)	비중(%)
1	한 국	19,610	85.4	853.5	84.8
2	벨기에	1,342	5.8	58.4	5.8
3	미 국	775	3.4	38.5	3.8
4	중 국	567	2.5	25.9	2.6
5	폴란드	252	1.1	7.2	0.7

* HS Code 28252011 기준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물투자실무가이드

칠레 리튬산업 관련 법령 및 국가리튬전략

리튬과 관련되어 가장 최초로 설립된 기구는 국가원자력위원회(CCHEN, La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로 1965년 법률 제16319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리튬은 핵연구를 위한 ‘전략자원’으로 지정되었으며, CCHEN에 리튬개발 허가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CCHEN은 리튬 판매량 및 수출량을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염수 추출량 할당 수행기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 한편, 1979년 개정된 광업부 소관 시행령 제2886호(DL2886/1979)에 의거하여 모든 리튬은 국가자원으로 귀속되나, 1979년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 ☐ 또한, 1983년 개정된 광업법 제 18248호에 의거 리튬은 일반적인 광업권 허가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영기업,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개발, ▲칠레정부의 행정허가, ▲대통령이 정한 조건 내에서 리튬 운영 특별계약(CEOL, Contratos Especiales de Operación de litio)을 체결한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리튬 개발을 위해서는 광업부와 CEOL 체결, CCHEN에서 염수 추출, 판매 및 수출 할당량을 배정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취득(원주민 사업 협의 포함)해야 한다.
- ☐ 칠레 보리치 대통령은 2023년 4월 칠레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 개발, 민관 협력(PPP), 기술 역량 강화, 환경 보호, 그리고 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3월에는 다음의 국가리튬전략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표 4] 칠레 국가리튬전략 세부지침

세부지침	주요 내용
전략염호 지정	▶ 아타카마염호와 마리쿡가염호를 전략 염호로 지정하고, 해당 염호는 국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칠레구리공사가 프로젝트를 추진
국영기업 추진 프로젝트 지정	▶ 칠레구리공사는 페데르날레스 염호, 칠레광물공사는 알토안디노스 염호를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
보호염호 지정	▶ 전체 염호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염호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 보존할 예정
민간 주도 프로젝트 추진	▶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26개 염호 대상으로 민간 주도 프로젝트 추진

칠레 국가리튬전략 이행현황

☐ 전략염호 개발

▶ 아타카마 염호

- ▶ 칠레구리공사와 SQM은 2024년 5월, 「아타카마 염호의 광업, 생산, 산업, 지역사회 및 환경부문 개발을 위한 제휴협정」을 최종 체결하였다. 양사는 각각 자회사인 Minera Tarar, SQM Salar를 통해 2025년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리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합작법인에서는 Codelco가 대주주가 되어 2060년까지 리튬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CORFO와 SQM 간의 기존 조광권 계약은 2030년 까지 유효하며 2031년부터 2060년까지는 Minera Tarar가 CORFO와의 계약 주체가 된다. 이에 2030년까지는 SQM 주도의 운영, 2031년부터는 Codelco 중심의 운영이 될 전망이다.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SQM이 보유하고 있던 광업권 전체가 Codelco 및 자회사에 양도 된다.

▶ 마라쿡가 염호

- ▶ 아타카마 염호 다음으로 부존량이 풍부한 마라쿡가 염호는 칠레구리위원회(Codelco)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라쿡가 염호에는 40여 개의 광업권자가 있으나 Codelco가 2024년 3월 호주 LPI(Lithium Power International)를 인수하며 기존 MSB 프로젝트를 흡수하였고, 2024년 5월에는 SQM과의 협정으로 마라쿡가 염호 내 광업권을 양도 받아 마라쿡가 내 최대 규모의 광업권자가 되었다. Codelco는 2024년 6월 마라쿡가 염호 개발을 팔로마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민간 파트너(최대 지분 49%)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 ▶ 이 과정에서 Codelco는 로스차일드 은행을 프로젝트 주관사로 선정하였고, 투자지침서를 54개 기업에 공개하였으며 2025년 1분기 중으로 파트너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54개사에는 현재 아타카마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Albemarle과 SQM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SQM의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 Tianqi Lithium도 포함되지 않았다. 초청을 받은 기업은 90일 이내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법적구속력이 부과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 ▶ 동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총 23억 달러에 달하며 1단계에서는 12억 달러를 투입, 증발형으로 20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연간 2만 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11억 달러를 투입, 직접추출기술(DLE, Direct Extraction Technology)을 활용하며 2033년부터 2060년까지 연간 3만 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영기업 추진 프로젝트

▶ ENAMI 알토안디노스 프로젝트

- ▶ 동 프로젝트는 아타카마주에 위치한 세 개의 염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리튬 생산량은 60,000톤 (LCE)으로 예상된다. ENAMI에서는 2024년 5월 파트너 선정절차를 개시했으며 2024년 7월 8개국 12개사에서 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였고, 2024년 8월 1차 심사 통과기업 6개사를 발표하였다. 최종 파트너 선정결과는 2025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 Codelco 페데르날레스 염호(Salar de Pedernales)

- ▶ 페데르날레스 염호는 아타카마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리튬 개발이 진행된 바 없다. Codelco는 해당 염호 내 최대 광업권자로서, 2024년 하반기 내 사전조사 수준의 기초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민간 주도 프로젝트

- ▶ 칠레 광업부는 민간투자 주도 대상 염호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정보요청절차(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진행하였고 10개국 54개 사로부터 88개의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국가별로는 칠레(59개), 캐나다(11개), 호주(4개), 스위스(4개), 미국(3개), 중국(2개), 싱가포르(2개), 영국(1개), 독일(1개), 인도(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광업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리튬운영특별계약(CEOL) 체결메커니즘을 협의 중에 있다.

리튬 공급망 구축사업

- ▶ CORFO에서는 2022년 8월 칠레 리튬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자 칠레산 리튬을 우대단가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모집절차를 시작하였고 2023년 BYD Chile와 청산그룹의 자회사인 Yongqing Technology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 ▶ BYD는 SQM으로부터 2030년까지 연간 11,244톤의 탄산리튬을 우대가격으로 공급받게 되며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5.2억 달러의 투자가 수반되는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제출했다.(연간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5만 톤 생산) 해당 공장은 2024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4년 5월 BYD측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 ▶ 한편, 중국 청산그룹의 자회사인 Yongqing Technology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탄산리튬을 공급받게 되며 약 2.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연간 12만 톤의 인산철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Antofagasta Global Green Lithium Eco Industrial Park로 명명되었으며 Yongqing의 경우 SQM 물량뿐 아니라 아르헨티아에서 프랑스 기업 Eramet과 함께 생산하는 리튬도 함께 공급받을 예정이다.
- ▶ CORFO에서는 Albermarle 생산 물량에 대해서도 우대가격 제공 및 밸류체인 구축사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2043년까지 탄산리튬을 우대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총 물량은 연간 9,500톤으로 이는 Albermarle 생산량의 15%인데 최대 25%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5%씩 증가하게 된다.

시사점

칠레생산진흥청(CORFO)의 A씨는 KOTRA 산티아고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칠레의 리튬이 가지고 있는 높은 부가가치를 언급하며,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의 부상으로 인한 리튬 수요 증가를 언급했다. 또한, 칠레는 SQM과 Albemarle과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리튬 산업을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칠레 리튬산업은 가치사슬 내에서 봤을 때 리튬의 개발, 추출,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칠레 정부가 국가리튬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튬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배터리 사업자가 제한되어 있어 협력 가능 기업 및 국가도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칠레 리튬개발에 참여해왔던 SQM과 Albemarle의 참여 비중이 현재로서는 가장 두드러지나, 최근 중국 기업이 지분 참여, 신규사업자 입찰 참여, 양극재 공장 건설 등 칠레가 추진 중인 다양한 리튬 산업 개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리튬 장기구매 계약 체결, 신규사업자 입찰 참여의 형태로 칠레 리튬산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리튬 밸류체인 구축사업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리튬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여러 프로젝트에 다수 해외 기업과 함께 우리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2026년 말에 칠레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선 이후 리튬산업 개발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

출처: CEPAL, Consejo Minero, InvestChile,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료 종합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세계 천연가스 공급 안보 위험 요인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4.11.25)

원문 IEA(2024.10) Global Gas Security Review 2024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충격 이후,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상보다 저조한 LNG 공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주요 수송 경로의 LNG 운항 차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천연가스 공급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 ▶ '22~'23년 가스 공급 충격 이후,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가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
- ▶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충격 이후**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24년에는 성장세를 보여 '24~'25년 세계 가스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하지만, 주요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22년 최고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LNG 공급**으로 인해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와 더불어 **주요 수송 경로의 LNG 운항 차질**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의 불확실성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예상보다 낮은 LNG 공급

- ▶ '24년 1~3분기 세계 LNG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7bcm) 증가에 그쳐 **여전히 저조하며**, 이는 '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 전반적인 천연가스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5년 전망 역시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
- ▶ LNG 생산량 증가세 둔화의 주요 원인은 **앙골라, 이집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기존 생산국들의 프로젝트 지연과 원료가스(feed gas) 수급 문제에 기인**
- ▶ 다만, 4분기에는 미국의 Plaquemines LNG 수출 터미널과 서아프리카의 Tortue FLNG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LNG 공급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
- ▶ 그러나 '24년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LNG 공급량은 2%(10bcm)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이는 '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수송 및 연계 계약이 '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 수송의 향방이 주요 공급 불확실성 요인으로 대두
 - ▶ '24년 말 우크라이나-Gazprom간 가스 수송 및 연계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망 운영사가 계약 갱신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고, 양측 간 정치적 타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5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송 중단 위험이 고조
 - ▶ '23년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전체 가스 수요의 4% 미만이지만, 주요 수입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가스 수요 중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경로 차단 시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몰도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IEA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충분한 저장용량, 종류 상호 연결성, 글로벌 LNG 시장에 대한 간접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수송 중단이 즉각적인 공급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 하지만, 몰도바의 경우는 이와 달라 겨울철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몰도바와 지역 및 국제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 우크라이나 수송이 중단되면 '24년에 비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PNG) 가스 공급량이 약 15bcm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25년 유럽은 더 많은 LNG를 수입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가스 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LNG 수송 요충지 운항 차질

- ➡ '24년 LNG 수송은 파나마 운하의 수위 저하와 수에즈 운하 인근 무력 충돌로 인해 글로벌 LNG 교역의 두 핵심 수송로에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며 전례 없는 물류 난관에 직면
 - ▶ LNG 수송의 병목현상이 아직 심각한 시장 혼란이나 교역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운송 물류 리스크는 증가한 상황
- ➡ (파나마 운하) '23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선박 통행이 크게 제한되어 '23년 8월 대기 선박이 163척까지 증가하는 등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었으며, '24년 들어 일부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LNG 통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한 상황
- ➡ (수에즈 운하) '24년 초부터 중동 지역의 안보 악화로 인한 후티 반군의 무차별적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의 LNG 수송량이 전년 대비 90% 가량 급감했으며, 일부 주변국 출항 선박과 아시아발 공선 상태의 LNG 선박을 제외하고는 선사 대부분이 수에즈 운하 항로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 ➡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의 동시다발적 통행 제한으로 LNG 운반선들이 희망봉 경유 노선으로 전환되면서 '24년 1~8월 희망봉 경유 물동량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했고, 이로 인한 수송 거리 증가로 LNG 톤마일 수요는 11% 증가한 반면 전체 교역량은 정체된 상황
- ➡ LNG 수송 요충지의 운항 차질이 LNG 공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 가스 시장에서 LNG 거래의 잠재적 취약성을 부각시킴

공급망 소식통

2025 한국무역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대중소 동반수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국무역협회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5 한국무역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대중소 동반수출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내 최대 전문무역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직접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을 선발, 전 세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친환경, 그린철강, 식량, 바이오,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고객사 발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 목적: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 ▶ 참가 대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업하여 해외 프로모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 방식: 해외진출 희망기업 참가신청 후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지원기업 선발
- ▶ 품목: 친환경 관련 화학공업 제품, 기계류, 바이오, 에너지, IT 등 산업재
- ▶ 선정 혜택: (포스코인터내셔널) 영업마케팅, 미팅 주선·통역 등 진행, 멘토링 등 지원
(한국무역협회) 홍보 및 무역 실무 컨설팅 지원, KITA 비즈니스센터 무료이용

□ 진행절차 및 일정

* 필수 제출 서류

- ① 협업제안서(자유양식), ②제품(기술)소개서, ③ 제품(기술) 성숙도 증빙자료

공고 및 접수	서류 심사	대면 심사	최종 선정
~25.01.16(목)	~25.01.23(목)	25.02.05(수)	25년 2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PT 심사 등 선정발표는 업체별 개별 통지 예정

* 사이트 내 첨부문의 세부 모집요강 필수 확인(pdf 파일)

□ 신청·문의

- ▶ 신청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하단에 표기된 [사업참가 신청하기]에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
- ▶ 관련 문의: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576, stcnet@kita.net, 카카오톡 상담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글로벌 경제지표 ['24.12.24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2/20	12/23	12/24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451.40	1,452.00	1,456.40	0.30	13.07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449.40	1,450.92	1,454.70	0.31	13.05
₩/CNY	181.44	181.37	187.56	198.20	198.45	198.51	0.03	9.45
₩/¥100	945.56	912.25	921.19	925.28	927.30	927.64	0.04	1.69
¥/U\$	133.73	141.19	145.03	156.86	156.59	157.00	0.26	11.20
U\$/EUR€	1.0617	1.1105	1.1077	1.0362	1.0436	1.0395	△0.39	△6.39
CNY/U\$	6.9630	7.1092	7.0934	7.2983	7.2987	7.2986	△0.00	2.66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63.1원, (₩/¥100) 900.3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2/23	12/24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3.33	73.26	△0.1	3.0	△3.8
						△0.1%	4.2%	△5.0%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1.55	100.60	△1.0	3.3	△39.9
						△0.9%	3.3%	△28.4%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838.00	8,847.50	9.5	1035.0	371.5
						0.1%	13.2%	4.4%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04.00	2,541.50	37.5	473.0	206.0
						1.5%	22.9%	8.8%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200.00	15,260.00	60.0	△625.0	△1040.0
						0.4%	△3.9%	△6.4%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0말	'24.11말	12/19	12/20	12/23	12월(~2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1	1.84	1.74	1.74	1.74	1.76
(%, YoY)	29.9%	△23.0%	△14.8%	23.4%	10.8%	△0.4%	△0.4%	△0.7%	0.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75	6.68	6.63	6.63	6.63	6.64
(%, YoY)	14.7%	10.7%	△2.3%	5.4%	4.0%	3.9%	3.9%	4.1%	4.0%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12/6	12/13	12/20	전주비(12/13)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256.46	2384.4	2390.17	0.2%	35.8%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12/19	12/20	12/23	12/24	전주비(12/23)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976	990	994	997	0.3%	△52.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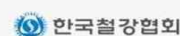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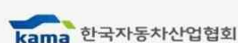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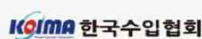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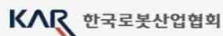
주관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